어디서든 즐길 '녹색공간' 늘린다

익산시, 치유·힐링 접목된 도내 유일 국립 치유의 숲·트래킹 코스 조성

익산시가 지역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을 대폭 확대해 쉼과 여가가 어우러진 녹색정원도시로 거듭난다.

특히 자연과 도시가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곳곳에 녹색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우선 금강의 절경이 내려다보이는 웅포면 함라산 자락에 도내 유일의 '국립 치유의 숲'이 들어선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원광대 한의학과와 한방병원 등 지역의 인프라를 접목해 단순한 치유의 목적을 넘어 전문가의 치료까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다.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까지 연결된 트레킹 코스도 조성된다. 코스는 태봉골에서 출발해 치유의 숲까지 2km 구간, 야생차 군락지를 거쳐 입점마을까지 연결되는 9.18km 구간 등이다. 해당 구간에 꽃과 수목 10만 그루까지 식재가 완료되면 계절별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트레킹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안생태습지는 다양한 테마가 접목된 지방정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과 체험,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방정원을 운영하고 최종 목표인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최근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생태 보고로 변화된 금마 일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금마 서동농촌테마공원 내 생태학습원, 놀이터 등 생태관광기반시설 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오는 11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학습원에 방문자 안내와 교육공간을 조성해 환경보전을 위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오감만족 체험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심 속 공원 5곳을 조성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첫 모내기

군산시농기센터,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산물·전기생산을 동시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12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완공에 따른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시범사업은 에너지 고갈 등 자원 위기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발맞춰 농업에서 작물재배와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정부정책 사업이다.

농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아래 농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완공된 '군산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882㎡ 규모에 48.88kwh 생산용량으로 설치됐으며 생산된 전기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에 자체 공급해 전력사용량의 최대 40%까지 충당, 연간 1천4백50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군산 대표 벼 품종인 신동진벼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의 논벼 수량 변화와 농기계 활용을 고려한 시설 설치, 태양광 적정모델 선정과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기 생산량 등 논벼 실증재배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과 재배작물의 효율적인 재배기술, 생육상황, 수량성 등 재배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영농철 용수난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59.1%(501mm)로 이달 농업용수 공급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시는 현재 저수지의 저수량이 대부분 정상 회복됐으나, 농업용수 사용이 집중되는 영농철인 만큼 농업용수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영농기 동안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강수량과 저수율을 상시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물 부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통해 용수관리 및 공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단계 진입 시 대책상황반 운영과 더불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와 긴급용수 확보, 인력 및 양수장비 긴급 투여하여 가뭄체계 구축, 가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선사하는 도심 속 글램핑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문화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익산글로벌문화관, 도심글램핑 인기…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운영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선사하는 도심 속 글램핑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관 하늘정원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도시글램핑이 특별한 이벤트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매회 매진행렬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총 4회를 운영해 매회 40~50명이 참여하며 누적방문객이 179명에 이른다. 매월 셋째 주에 홈페이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이달도 모두 매진이다.

도시글램핑은 바쁜 일상에서 지친 가족을 위한 활력 충전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운영됐으며 올해는 보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풍선아트 및 버블 공연, 복화술 인형극, 가족 레크레이션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구성돼 있다.

특히 세계 전시 물품 관람, 의상 체험, 전통춤 배우기 등을 통해 세계 문화 다양성을 배우고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익산글로벌문화관 홈페이지(https://global.iksan.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063-859-5385, 5386으로 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행사 전 1층 글로벌 식당에서 이색적인 음식을 먹고, 전시 관람과 의상 체험을 하면서 외국 여행을 온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다"며 "재미있는 해설이 있는 세계문화 전시체험과 신나는 공연을 보면서 가족 모두 힐링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문화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명품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글로벌문화관은 도내 최초 세계전시문화복합체험시설로 1층은 다문화 식당(중국, 태국)과 카페, 2층은 세계 물품 전시관과 의상 체험실, 3층은 요리체험실과 교육실, 옥상에는 하늘쉼터가 조성돼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중·장년층 '인생학교'로 재도약 지원

익산시가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학교 개설로 인생 후반기 재도약을 지원한다. 신중년들의 새로운 적성과 관심사를 찾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인생 2막 설계를 돕는다.

시는 1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50+ 어깨동무 인생학교'를 열었다.

'50+ 어깨동무 인생학교'는 평생학습 소외계층인 40대 이상 60세 미만 대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와 삶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새로운 적성·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인생학교는 총 47명이 입학해 특강, 주제포럼, 현장체험 등에 참여하며 작년 프로그램과 달리 디지털, 문예창작, 인간관계, 취업·창업학부로 나누어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학교 학부체제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관계 △가족 △여가 △건강 등 7대 영역에 대하여 분야별로 주 1회 총 8주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최대 30% 할인

군산시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매달 적립된 마일리지를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출발 버튼'을 눌러 이용 등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 발급은 알뜰교통카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1만1,000원(44회)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환경의날,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지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 제주박물관서 사진전 개최

익산시가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로비 및 편의공간에서 '검이불루 화이불치-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제목으로 백제역사유적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제목처럼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미학을 담아 1,400여 년 전 찬란했던 문화를 선보이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아름다움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익산·공주·부여에 위치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여덟 유적의 모습을 '삶의 공간 도성', '신앙의 공간 사찰' 그리고 '사후 공간 왕릉'으로 구성했다.

/익산=이재춘기자